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연구(I)

— 선의 유형(類型)을 중심으로 —

정 삼 호 · 강 혜 원*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

Clothing Design Preference of Women by Physical Type and Age: Study I

— In the area of line categories —

Sham Ho Chung · Hewon Kah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991. 1. 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hysical type and age on preference for line in women's clothing design. Line preference in clothing design was concerned with varying in length, direction, division, and shape. All of the preference measures were devised specifically for this study. Furthermore, items on height and weight for physical type as well as age of the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Data were obtained by means of structured interviews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588 women (20~60 years of age) in Seoul. Analysis was by One-way ANOVA, Chi-square (X^2), and Scheffé test.

It was found that 4 categories of line preference were affected by both body type and height. An age effect was found on 3 categories of design lines; however, preference for 2 categories of design lines in clothing styles were unaffected by either physical type or age.

It was concluded that body type, height, and age are powerful predictive variables for line preference in clothing design. Generally, there was some similarities in preference for lines among slim body types, tall figures, and younger age group as well as heavy body types, short figures, and older age group.

I. 서 론

의복디자인의 심미성과 신체적조화를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성인여성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여성들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결혼, 출산, 자녀 양

육 및 가정살림으로 인해 결혼전의 균형잡힌 몸매와는 달리 체형의 불균형을 이루기 쉽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의복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한편 시판되고 있는 기성복의 문제점의 하나는 균형잡힌 체형을 가진 젊은층 위주의 디자인과 획일적인 유행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의복종류에 따라 중요시하는 측면에는 차이가 있으나 의복선택에 있어 스타일과 색상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¹⁾.

본 연구는 성인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의복으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의 선택능력이 있는가를 그리고 연령증가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의복디자인 선호에 신체적 조건과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I, II에서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 I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1) 신체적 조건에 따른 선의 유형 선호의 차이를 규명하고, 2) 연령에 따른 선의 유형 선호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성인여성을 위한 새로운 의복디자인을 개발하려는 의류산업체에게 선의 선호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해 주며, 동시에 각 연령층에 어울리며, 신체적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복선택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II. 문헌적 고찰

1. 신체적 특징

중년기여성의 신장감소와 체중증가현상은 인체의 지방질이 허리와 엉덩이로 이동해가기 때문이며^{12,13)}, 특히 40·50대는 신진대사기능 감소와 체중증가로 어깨와 등이 굽어보이며, 배와 엉덩이는 비대해지고, 허리가 굽어져 체형변화에 따른 의복계획이 필요하다¹⁴⁾. 성인여성의 체형변화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결과¹⁵⁻¹⁹⁾에서 여성들은 3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장에 비해 허리와 가슴, 배 및 진동과 상완 등의 둘레항목의 증가로 체중이 증가하였고, 특히 현저한 증가현상은 가슴, 허리, 배 둘레이며, 가슴과 엉덩이는 쳐지고, 상완부, 목둘레, 손목둘레가 굽어지며, 어깨부위가 굽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공업진흥청에서 실시한 연령별 표준체위조사²⁰⁾에서도 여성의 체중과 다른 부위의 증가추세가 나타났다. 즉 21~25세에서 체중은 51.2 kg이었고, 이때의 체중을 기준으로 하면 31세 이후는 1.8 kg, 41세 이후는 7.0 kg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가슴둘레는 82.4 cm에서 31세 이후는 2.0 cm, 41세 이후는 7.2 cm 더 굽어졌고, 허리둘레는 64.8 cm에서 31세 이후는 4.6

cm, 41세 이후는 11.6 cm 더 굽어졌다. 반면 신장은 155.4 cm에서 41세에는 0.5 cm 감소하였다.

2. 의복디자인 요소와 선의 개념

의복디자인은 시각디자인의 요소인 선, 공간, 형(형태), 빛, 색채, 재질, 문양 등을 기본으로 인간의 창조적 욕구의 충족, 개성의 표현, 그리고 높은 시각적효과로서 조화와 아름다움을 갖춘 의복을 구성하는 데 있다²¹⁾. 따라서 디자인의 각 요소들을 비례, 균형, 리듬, 통일, 조형원리에 따라 체계적인 질서와 가치를 부여하므로서 의복의 내재적인 미와 실용목적에 의한 복식미를 창조하는 것이다¹¹⁾. 의복디자인 요소중 선(線)에 대해 살펴보면 선은 시각적인 흥미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요소로서 의복의 외곽선을 형성하며, 형태를 구성하고, 형태의 내부공간을 분할한다. 또한 선은 형(型)의 개념을 포함하며, 선의 적절한 사용은 의복을 통해서 착시현상을 일으켜 착용자의 외모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22,23)}. 착시는 선, 형, 공간, 색채 등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²¹⁾. 착시현상은 비교를 통한 판단의 과정에서 실제와는 다르게 착각하여 인지하는 것이며 물체의 형태, 크기, 선의 길이와 방향, 색채, 재질 등을 그 요소가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비교되어 다르게 인지된다²²⁾. 그러므로 착시의 원리를 의복디자인에 잘 적용한다면 체형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의복디자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의복디자인선호에 대한 선행연구

여자중학생의 체형에 따른 의복행동과 의복선호스타일 연구²⁴⁾에서 마른 체형은 전체적인 어울림, 디자인·스타일, 색상·무늬에서, 뚱뚱한 체형은 전체적인 어울림, 색상·무늬, 디자인·스타일에서 관심을 보였고, 표준체형은 전체적인 어울림에서만 관심을 보여 마른체형과 뚱뚱한 체형은 표준체형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인여성의 신체적조건에 따른 선의 유형별 디자인 선호연구⁹⁾에서 원피스의 수직선과 면분할에 의한 디자인은 마른체형과 아주 마른체형은 넓은 면분할을, 아주 뚱뚱한 체형은 좁은 면분할의 디자인을 선호하였고, 주름의 크기가 다른 디자인에서는 아주 마른체형과 뚱뚱한 체형은 주름의 간격이 넓은 디자인을, 마른체형은 주름의 간격이 좁은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또한 투피스의 재킷길이의 선호는 작은 키는 짧은 길이,

큰 키는 길이가 긴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광범위한 연령층에 대한 스타일의 선호연구²⁵⁻²⁸⁾에서 10대·20대 여고생, 여대생 모두 직선적이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30대·40대 성인여성은 곡선적이고 드레시한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선호디자인 감각연구²⁹⁾에서 단순한 모양의 활동하기 편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과 우아하고 여성다운 품위가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은 기존의 중년층 여성이었으며, 반면 남성적 느낌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과 예쁘고 귀여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은 미혼의 젊은층 여성으로서 연령에 따른 감각적 선호의 차이를 나타냈다. 여대생의 원피스드레스 줄무늬의 시각효과연구³⁰⁾에서 줄무늬 선의 방향, 각도, 배치에 따라 감정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즉 수직과 수평줄무늬 원피스는 전체적으로 굵고 넓게보여 아름답지 못한 선호하지 않는 디자인이었으나 허리이음선이 있는 사선줄무늬 원피스는 가늘어보여 안정감있는 선호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성인여성은 의복선택시 개성표현과 체형과 조화되는 디자인, 색상, 옷감, 무늬 등의 순으로 중요시 하였다¹⁷⁻¹⁰⁾.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 여성에 있어 신체적 조건과 연령은 의복디자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의복선택에 있어 디자인과 색상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용어 정의

1) 선의 유형선호

실루엣선과 실루엣내부 구성선의 위치, 방향, 길이 등의 선그림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복디자인 선호에 해당됨.

2) 의복디자인 유형

· 원피스 : 길(bodice)과 스커트부분으로 구성되며, 허리선에 이음선이 있거나 없는 원피스드레스

· 투피스 : 같은 또는 다른직물로 상하의를 조화시킨 한벌의 의복(재킷과 스커트, 스웨터와 스커트, 니트거디건과 스커트, 티·셔츠와 스커트)

3) 신체적 조건

골격, 근육, 피하지방으로 구성된 체형으로서 신체의 생김모습 또는 용모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비만도, 신장, 체형을 포함함.

① 비만도 : 신장과 체중을 기본으로 비만상태를 판정

하는 Rohrer 지수(신체중실지수)를 사용하여 국민표준체위조사 연구의 체형분류법²⁰⁾에 따라 3체형으로 분류함.

- 마른체형 : 표집대상의 Rohrer 지수 1.28 미만
- 표준체형 : 표집대상의 Rohrer 지수 1.28~1.48
- 뚱뚱한 체형 : 표집대상의 Rohrer 지수 1.49 이상

② 신장 : 의류치수규격의 KSK 0065~K 0066의 성인여자용 원피스와 상의치수를 기본으로 3신장으로 분류함.

- 큰키 : 160 cm 이상
- 표준키 : 155~159 cm
- 작은키 : 154 cm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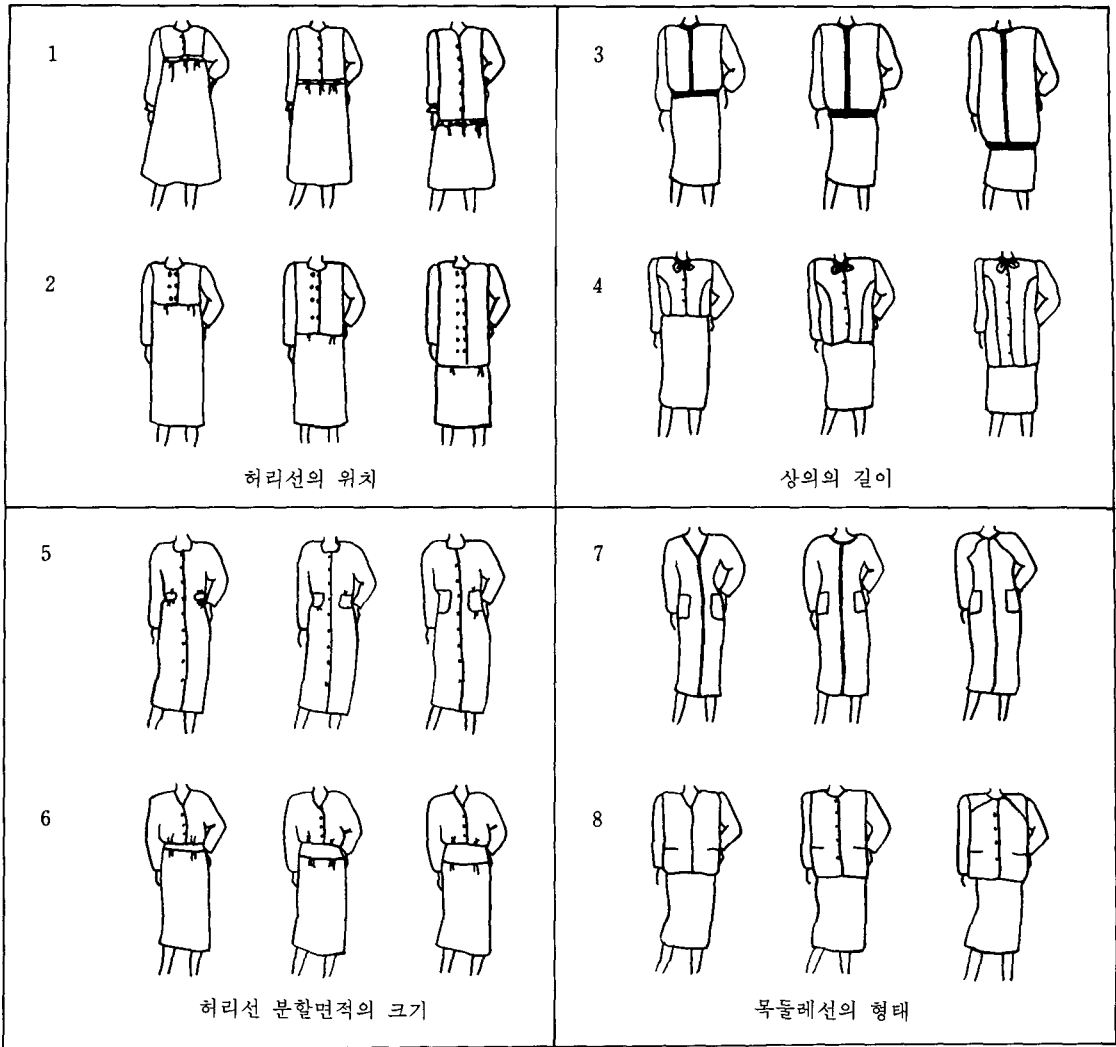
③ 체형 : 신장을 기준으로 한 비만도에 따라 9유형으로 분류함.

- 큰 키에 마른체형 : 160 cm 이상의 키, 비만도 Rohrer 지수 1.28 미만
- 큰 키에 표준체형 : 160 cm 이상의 키, 비만도 Rohrer 지수 1.28~1.48
- 큰 키에 뚱뚱한 체형 : 160 cm 이상의 키, 비만도 Rohrer 지수 1.49 이상
- 표준키에 마른체형 : 155~159 cm의 키, 비만도 Rohrer 지수 1.28 미만
- 표준키에 표준체형 : 155~159 cm의 키, 비만도 Rohrer 지수 1.28~1.48
- 표준키에 뚱뚱한 체형 : 155~159 cm의 키, 비만도 Rohrer 지수 1.49 이상
- 작은키에 마른체형 : 154 cm 이하의 키, 비만도 Rohrer 지수 1.28 미만
- 작은키에 표준체형 : 154 cm 이하의 키, 비만도 Rohrer 지수 1.28~1.48
- 작은키에 뚱뚱한 체형 : 154 cm 이하의 키, 비만도 Rohrer 지수 1.49 이상

2. 측정도구

1) 선의 유형선호

본 연구에서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개발된 디자인선호 측정도구는 [그림 1] [그림 2]와 같이 흑백 선그림의 자극물을 사용하여 피험자가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을 1개씩 유형별로 선택토록 하였다. 총15개의 원피스 또는 투피스의 디자인 유형이며, 이를 디자인의 특성과 유사성에 따라 8개의 디자인 유형범주 즉 허리선의 위치, 상의



〔그림 1〕 선의 유형번호 측정도구

의 길이, 허리선 분할면적의 크기, 목둘레선의 형태, 선의 간격, 세로선 장식의 분량, 직선·곡선의 형태, 직선의 방향으로 명명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3개 디자인이 제시된 유형범주는 1~3점, 2개 디자인이 제시된 유형범주는 1~2점을 부가하였다.

3.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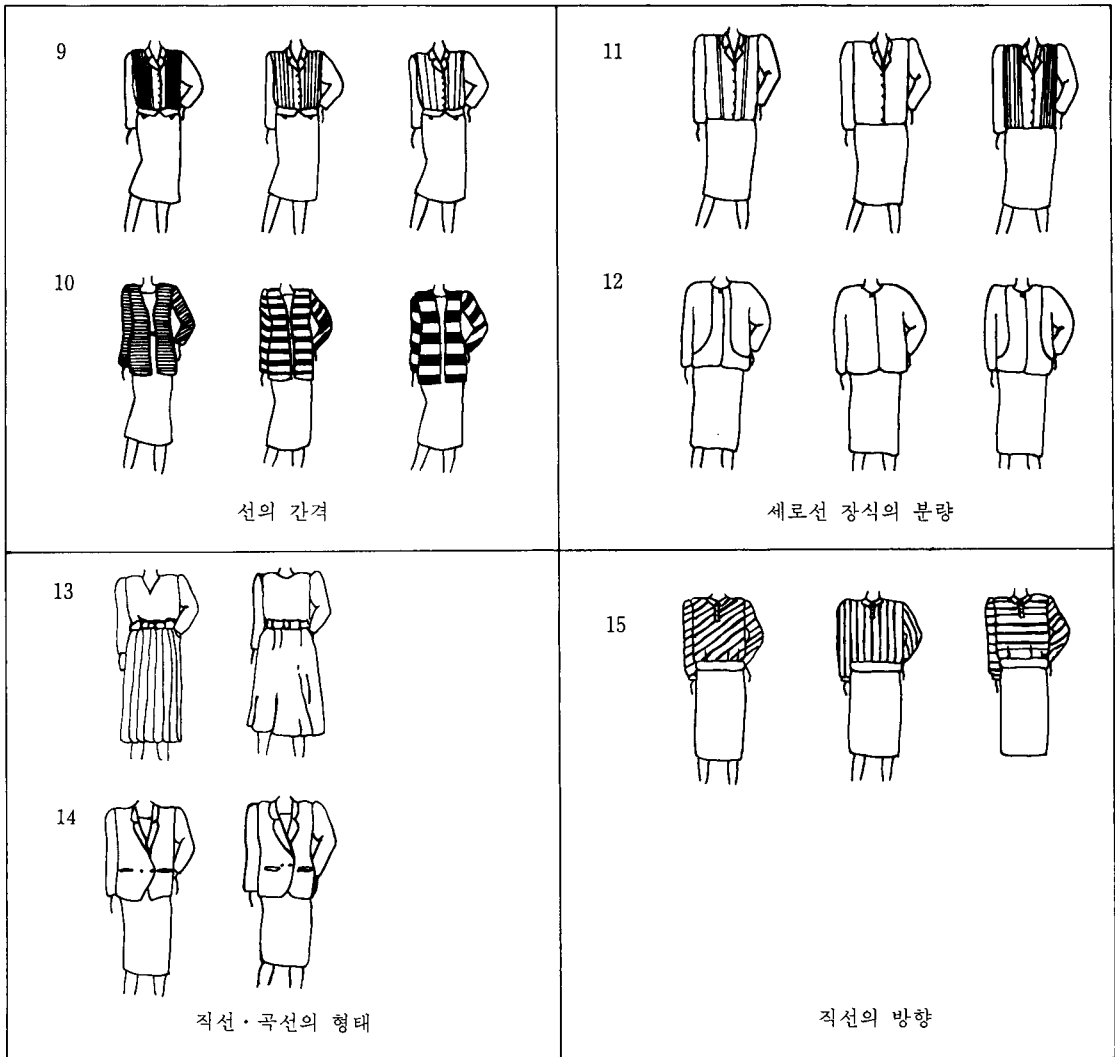
성인여성 5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1989년 4~5월에 훈련된 면접원들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총 650부가 수집된 것중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588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

었다.

4. 표집대상의 분포

서울거주의 21세~60세까지의 성인여성 588명이 표집대상이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88.9%이며, 경제수준은 중류층이상이 84.3%이다. 표집대상의 신체적 조건 즉 비만도, 신장, 체형의 연령별 분포는 <표 1><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때 비만도는 마른체형 33.7%, 표준체형 44.9%, 뚱뚱한 체형 21.4%이며, 신장은 작은키 8.7%, 표준키 33.8%, 큰키 57.5%이었다. 연령별로



[그림 2] 선의 유형선호 측정도구

불때 20대는 전반적으로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에 치중되었고, 40대·50대는 표준체형과 뚱뚱한체형에 치중되었다.

5. 자료분석방법

각 변인의 빈도분포를 산출하였고, 신체적조건과 연령에 따른 선의 유형선호에 대한 차이검증은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신체적조건에 따른 선의 유형선호

선의 유형선호를 신체적조건(비만도, 신장, 체형)에 따라 8가지 디자인 유형범주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한 결과는 <표 3><표 4>와 같이 6가지 디자인 유형범주에서 신체적조건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허리선의 위치

허리선의 위치가 다른 디자인1과 디자인2는 신장과 체형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작은키와 표준키는 중간허리선 위치를, 큰 키는 낮은 허리선 위치를 좀 더

선호하였다. 특히 작은키의 표준체형이 중간허리선 위치를 좀 더 선호하였고, 큰 키의 표준체형과 표준키의 뚱뚱한 체형이 낮은 허리선 위치를 높게 선호하였다.

2) 상의의 길이

상의의 길이가 다른 디자인3과 디자인4는 신체적조건 3가지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뚱뚱한 체형과 큰키는 마른체형이나 작은키에 비해 상의의 길이가 긴 디자인을 좀 더 선호하였다. 특히 큰 키의 뚱뚱한 체형은 상의의 길이가 긴 디자인을 좀 더 높게 선호하였다.

3) 허리선 분할면적의 크기

허리선 분할면적의 크기가 다른 디자인5와 디자인6은 신체적조건 3가지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뚱뚱한 체형과 작은키는 좁은 허리선의 분할면적을 선호하는데 비해 마른체형과 큰키는 넓은면적을 좀 더 선호하였다. 특히 작은키의 뚱뚱한 체형은 좁은면적을 높게 선호하는데 비해 큰키의 표준체형과 마른체형 및 표준키의 마른체형은 넓은 면적의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4) 목둘레선의 형태

목둘레선의 형태가 다른 디자인7과 디자인8은 비만도와 체형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은 둥근목둘레선의 수직방향을 선호하는데 비해 뚱뚱한 체형은 브이(V)목둘레선의 수직방향을 좀 더 높게 선호하였다. 특히 표준키의 뚱뚱한 체형이 브이목둘레선의 수직방향을 디자인을 높게 선호하였다.

5) 선의 간격

선의 간격이 다른 디자인 9와 디자인 10은 신장과 체형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큰키와 표준키는 작은키에 비해 세로선 주름넓이가 넓고, 가로선굵기가 굵

<표 1> 표집대상의 연령에 따른 비만도와 신장분포

연령 (%)	비만도	마른체형	표준체형	뚱뚱한 체형	전 체
	명 (%)	명 (%)	명 (%)	명 (%)	명 (%)
21~30세	124 (47.9)	114 (44.0)	21 (8.1)	259 (44.1)	
31~40세	60 (34.9)	69 (40.0)	43 (25.0)	172 (29.3)	
41~50세	8 (7.5)	59 (55.7)	39 (36.8)	106 (18.0)	
51~60세	6 (11.8)	22 (43.1)	23 (45.1)	51 (8.7)	
전 체	198 (33.7)	264 (44.9)	126 (21.4)	588 (100.0)	

연령 (%)	신장	큰 키	표준 키	작은 키	전 체
	명 (%)	명 (%)	명 (%)	명 (%)	명 (%)
21~30세	171 (66.0)	73 (28.2)	15 (5.8)	259 (44.1)	
31~40세	107 (62.2)	57 (33.1)	8 (4.7)	172 (29.3)	
41~50세	45 (42.5)	42 (39.6)	19 (17.9)	106 (18.0)	
51~60세	15 (29.4)	27 (52.9)	9 (17.6)	51 (8.7)	
전 체	338 (57.5)	199 (33.8)	51 (8.7)	588 (100.0)	

<표 2> 표집대상의 연령에 따른 체형분포

연령 (%)	체형	큰 키			표준 키			작은 키			전 체
		마른체형	표준체형	뚱뚱한 체형	마른체형	표준체형	뚱뚱한 체형	마른체형	표준체형	뚱뚱한 체형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21~30세	84(32.4)	71(27.4)	16(6.2)	34(13.1)	36(13.9)	3(1.2)	6(2.3)	7(2.7)	2(0.8)	259(44.1)	
31~40세	37(21.5)	41(23.8)	29(12.1)	21(16.9)	23(13.4)	13(7.6)	2(1.2)	5(2.9)	1(0.6)	176(29.3)	
41~50세	4(3.8)	22(20.8)	19(17.9)	2(1.9)	27(25.5)	13(12.3)	2(1.9)	10(9.4)	7(6.6)	106(18.0)	
51~60세	1(2.0)	3(5.9)	11(21.6)	3(5.9)	17(33.3)	7(13.7)	2(3.9)	2(3.9)	5(9.8)	51(8.7)	
전 체	126(21.4)	137(23.3)	75(12.8)	60(10.2)	103(17.5)	36(6.1)	12(2.0)	24(4.1)	15(2.6)	588(100.0)	

<표 3> 신체적조건별 디자인유형범주 선호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결과 :
허리선의 위치, 상의의 길이, 허리선 분할면적의 크기선호

선의 유형범주		허리선의 위치선호			상의의 길이선호			허리선 분할면적의 크기선호		
		평균 ^a	다중 비교 ^b	일원분산분석	평균 ^a	다중 비교 ^b	일원분산분석	평균 ^a	다중 비교 ^b	일원분산분석
비 만 도	마른체형	4.62		.97	3.89	B	3.04*	4.45	A	11.91***
	표준체형	4.58			4.10	AB		4.20	A	
	뚱뚱한체형	4.57			4.24	A		3.74	B	
신 장	큰 키	4.73	A	7.25***	4.21	A	6.43**	4.31	A	5.33**
	표준키	4.46	B		3.92	AB		4.09	AB	
	작은키	4.18	B		3.61	B		3.73	B	
체 형	큰키에			3.67***			2.62**			5.15***
	마른체형	4.72			4.00			4.48		
	표준체형	4.89			4.29			4.44		
	뚱뚱한체형	4.47			4.40			3.77		
	표준키에				3.73			4.50		
	마른체형	4.47			3.96			3.92		
표준체형	4.33		4.14		3.89					
뚱뚱한체형	4.81									
작은키에										
마른체형	4.33			3.50		3.83				
표준체형	3.88			3.63		4.00				
뚱뚱한체형	4.53			3.67		3.20				
*p < .05		a :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허 리선 위치를 선호함			a : 점수가 높을수록 상의길 이 긴것을 선호함			a : 점수가 높을수록 넓은면 적을 선호함		
**p < .01										
***p < .001		b : Scheffé 검증결과는 다중비교란에 AB로 제시하여 같은문자는 집단간 평균에 유의차가 없 는 것을 나타냄.								

은디자인을 좀 더 선호하였다. 반면 작은키의 모든 체형
들은 큰키와 표준키의 체형보다 세로선 주름넓이가 좁
고, 가로선굵기가 가는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6) 직선의 방향

직선의 방향이 다른 디자인15는 신체적조건 3가지 모
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마른체형과 큰키는
수평선을, 뚱뚱한 체형과 작은키는 수직선을 좀 더 선호
하였다. 특히 마른체형중에서도 큰키와 작은키의 마른
체형은 수평선의 디자인을 높게 선호하였고, 작은키의
표준체형과 뚱뚱한 체형은 수직선의 디자인을 높게 선호
하였다.

2. 연령에 따른 선의 유형선호

연령에 따른 선의 유형선호는 <표 5>와 같이 4가지 디

자인 유형범주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
다.

1) 허리선의 위치

20대·30대는 40대에 비해 낮은 허리선 위치를 좀 더
선호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높은허리선 위치는 선호하지
않았다.

2) 허리선 분할면적의 크기

40대·50대의 높은 연령층일수록 허리선 분할면적이
좁은 것을 선호하였고, 30대는 좀 더 넓은 것을, 20대는
가장 넓은 허리선 분할면적을 높게 선호하였다.

3) 선의 간격

20대는 30대·50대에 비해 넓은 세로선 주름과 가로선
굵기가 굵은 것을 좀 더 선호하였고, 다른연령층은 중간
넓이의 세로선주름과 가로선굵기를 좀 더 높게 선호하였

<표 4> 신체적조건별 디자인유형범주 선호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결과 :
목둘레선의 형태, 선의 간격, 직선의 방향선호

선의 유형범주		목둘레선의 형태선호			선의 간격선호			직선의 방향선호				
		통계치 신체적 조건	평균 ^a	다중 비교 ^b	일원분산분석	평균 ^a	다중 비교 ^b	일원분산분석	평균 ^a	다중 비교 ^b	일원분산비교	
비 만 도	마른체형	3.69	A	9.24***	4.30		.86	2.41	A	8.10***		
	표준체형	3.61	A		4.31			2.21	B			
	뚱뚱한체형	3.21	B		4.15			2.14	B			
신 장	큰 키	3.60	1.06		4.34	A	8.18**	2.32	A	3.24*		
	표준키	3.49			4.31	A		2.20	AB			
	작은키	3.43			3.65	B		2.14	B			
체 형	큰키에	3.67	3.09**		4.33	2.81**	2.46		3.06**			
	마른체형									3.75	4.48	2.28
	표준체형									3.21	4.11	2.13
	표준키에	3.72			4.35		2.28					
	마른체형	3.49			4.25		2.15					
	표준체형	3.14			4.42		2.19					
	뚱뚱한체형	3.14										
	작은키에	3.75			3.75		2.42					
	마른체형	3.33			3.54		2.04					
표준체형	3.33	3.73	2.07									
		a : 점수가 높을수록 둥근목둘레선의 라그랑 소매를 선호함			a : 점수가 높을수록 넓은세로선주름과 가로선꺾기가 많은것을 선호함			a : 점수가 높을수록 수평선을 선호함				
*p<.05 **p<.01 ***p<.001		b : Scheffé 검증결과는 다중비교란에 AB로 제시하여 같은문자는 집단간 평균에 유의차가 없는 것을 나타냄.										

<표 5> 연령별 디자인유형범주 선호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결과 :
허리선의 위치, 허리선분할면적의 크기, 선의간격, 직선의 방향선호

선의 유형범주		허리선의 위치선호 ¹⁾		허리선 분할면적의 크기선호 ²⁾		선의 간격선호 ³⁾		직선의 방향선호 ⁴⁾		
		통계치 연령	평균	다중비교 ^a	평균	다중비교 ^a	평균	다중비교 ^a	평균	다중비교 ^a
21 ~ 30세		4.70	A	4.56	A	4.42	A	2.39	A	
31 ~ 40세		4.69	A	4.21	B	4.12	B	2.17	B	
41 ~ 50세		4.23	B	3.58	C	4.21	AB	2.15	B	
51 ~ 60세		4.47	AB	3.47	C	4.14	B	2.14	B	
일원분산분석		4.92**		22.12***		2.76*		6.42***		
*p<.05 **p<.01 ***p<.001		1)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허리선 위치를 선호함. 2) 점수가 높을수록 넓은면적을 선호함 3) 점수가 높을수록 넓은세로선주름과 가로선꺾기가 많은것을 선호함. 4) 점수가 높을수록 수평선을 선호함.								
		a : Scheffé 검증결과는 다중비교란에 AB로 제시하여 같은문자는 집단간 평균에 유의차가 없는 것을 나타냄.								

다.

4) 직선의 방향

티·셔츠의 직선디자인에 있어서 20대는 다른연령층에 비해 수평선 방향을 좀 더 선호하였고, 다른 연령층은 수직선 방향을 좀 더 높게 선호하였다.

3. 결과의 종합

선의 유형선호에 대해서 신체적조건 및 연령과의 관계를 종합하기 위하여 8가지 디자인 유형범주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난 것을 *표로서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1) 신체적조건에 따른 종합

신체적조건을 비만도, 신장, 체형의 여러유형으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만도에서 상의의 길이, 허리선 분할면적의 크기, 목둘레선의 형태, 직선의 방향의 디자인은 마른체형과 뚱뚱한 체형사이에서 대조적인 선호의 차이를 나타냈다. 마른체형은 주로 상의의 길이가 짧은 것, 허리선 분할면적이 넓은 것, 브이목둘레선의 수직방향, 수평선의

티·셔츠를 선호하였다.

(2) 신장에서 허리선의 위치, 상의의 길이, 허리선 분할면적의 크기, 선의 간격, 직선의 방향의 디자인은 큰키와 작은키 사이에서 대조적인 선호의 차이를 나타냈다. 큰키는 주로 낮은허리선 위치, 상의길이가 긴것, 허리선 분할면적이 넓은 것, 넓은 세로선 주름과 가로선 굵기가 굵은 것, 수평선의 티·셔츠를 선호하였다.

(3) 모든 신체적조건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않는 디자인은 세로선 장식의 분량과 직선·곡선의 형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여성은 자기자신의 신체적조건을 의복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신과 조화되는 디자인을 선택할 줄 알고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체형과 표준키는 자유롭게 디자인을 선택하고 있어 어떤 디자인의 의복도 자신의 체형과 어울려 자신있게 착용할 수 있으므로 의복디자인의 선택의 폭이 다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연령에 따른 종합

연령에 따른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령에서 허리선의 위치, 허리선 분할면적의 크기, 선의 간격, 직선의 방향의 디자인은 20대의 젊은층과 40대·50대의 중년층 사이에서 대조적인 선호의 차이를 나타냈다. 20대는 주로 낮은허리선 위치, 허리선 분할면적이 넓은것, 넓은세로선 주름과 가로선굵기가 굵은것, 수평선의 티·셔츠를 선호하였다.

(2) 연령에서 영향을 받지않는 디자인은 상의의 길이, 목둘레선의 형태, 세로선장식의 분량, 직선·곡선의 형태의 디자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큰키와 마른체형의 디자인 선호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로서 본 연구의 표집대상의 연령에 따른 신체적조건에 따른 분포가 20대·30대는 40대·50대보다 큰키와 마른체형 또는 표준체형에 치중되어 있기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의의 길이에서 마른체형은 짧은길이의 재킷, 20대 연령층은 중간길이의 재킷을 선호하여 차이를 보인것은 조사당시 재킷길이의 유행스타일이 디자인선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과 20대 연령층은 신체적 조건에 자신이 있으므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므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신체적조건과 연령에 따른 종합

신체적조건과 연령에 따른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조건중 비만도와 연령 모두에서 허리선 분

<표 6> 신체적 조건과 연령별 선의 유형 선호간의 일원 분산분석 결과

선의 유형 범주 ^a	신체적 조건			연 령
	비만도	신 장	체 형	
허리선의 위치 : 디자인 1과 2		***	***	**
상의의 길이 : 디자인 3과 4	*	**	**	
허리선 분할면적의 크기 : 디자인 5와 6	***	**	***	***
목둘레선의 형태 : 디자인 7과 8	***		**	
선의 간격 : 디자인 9와 10		**	**	*
세로선 장식의 분량 : 디자인 11과 12				
직선·곡선의 형태 : 디자인 13과 14				
직선의 방향 : 디자인 15	***	*	**	***

*p<.05 **p<.01 ***p<.001

a : 선의 유형범주에서 2개의 디자인으로 구성된 것은 두 개를 합한 것임.

할면적의 크기와 직선의 방향의 디자인은 선호의 차이를 나타냈다.

(2) 신체적조건중 신장, 체형, 연령 모두에서 허리선의 위치, 허리선 분할면적의 크기, 선의 간격, 직선의 방향의 디자인은 선호의 차이를 나타냈다.

(2) 모든 신체적조건과 연령에서 허리선 분할면적의 크기와 직선의 방향의 디자인은 선호의 차이를 나타냈다.

(3) 모든 신체적조건과 연령에서 영향을 받지않는 디자인은 세로선 장식의 분량과 직선·곡선형태의 디자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조건과 연령은 선의 유형선호와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연령은 신체적조건중 신장과 체형에 좀 더 관계되어 디자인 선호경향에 있어서 유사성이 나타났다. 큰키 또는 마른체형과 20대의 젊은 층사이에서, 작은키 또는 뚱뚱한 체형과 40대·50대의 중년층 사이에서 디자인 선호경향은 유사했다.

V. 결론 및 제언

첫째로, 신체적조건중 신장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며, 또한 비만도는 두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디자인선호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것은 비만도에서 마른체형과 뚱뚱한 체형, 신장에서 큰키와 작은키였다. 한편 유사한 디자인 선호경향을 보이는 신체적 조건은 큰키와 마른체형이었고, 작은키와 뚱뚱한 체형이었다. 표준체형과 표준키는 신체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디자인을 선택하였다.

둘째로, 연령은 신체적조건과 유사하게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특정 신체적조건과 연령은 선의 유형선호에서 유사성을 보여 큰키 또는 마른체형과 20대의 젊은층사이에서, 작은키 또는 뚱뚱한 체형과 40대·50대의 중년층사이에서 디자인 선호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째로, 신체적조건이 연령보다 좀 더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다. 선의 유형선호에서 상의의 길이, 목둘레선의 형태의 디자인은 신체적조건과 관계되나 연령과는 관계가 없어 신체적조건이 연령보다 디자인에 따라 좀 더 중요시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네째로, 모든 신체적조건과 연령에서 영향을 받지않는 디자인은 세로선 장식의 분량과 직선·곡선형태의 디자인이었다. 표집대상의 전반적인 선호경향은 장식의

적은디자인, 곡선적인 디자인, 중간길이의 상의, 브이 목둘레선의 수직방향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신체적조건과 연령은 선의 유형선호와 관련성이 있다. 특히 신체적조건중 신장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며, 비만도는 두번째로 영향력이 있다. 또한 연령은 신체적조건중 신장과 체형에 좀 더 관계되어 디자인선호경향에 유사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선의 유형선호에 있어서 조사당시의 유행스타일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측정 도구는 모두 본 연구에서 개발되어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논의를 거쳤으나 통계적인 신뢰도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디자인의 이론을 기초로 개발한 선(線)그림의 자극물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기성복의 사진이 자극물로 사용된다면 좀 더 실제상황과 가까운 디자인선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체적조건과 연령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디자인의 의복을 착용시킨 실험상황에서 관찰자의 지각에 의한 디자인 선호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객관적인 디자인 평가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박은주·이은영, 의복선택기준에 관한 요인구조분석, 한국의류학회지, 6(2), 1982.
- 2) 이현숙, 미혼여성의 기성복 구매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3) 정혜영, 의복구매행위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의류학회지, 7(1), 1983.
- 4) 고은성, 여대생의 기성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5) 허갑성,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인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24, 1986.
- 6) 민동원, 기성복의 구매 및 사용시 불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7) 송미령,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실태조사연구(I), 한국의류학회지, 12(1), 1988.
- 8) 정삼호, 성인여성의 색채 및 배색선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총, 1, 1987.
- 9) 정삼호,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총, 2, 1988.
- 10) 김미영, 생활양식유형과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11) 오현정·이은영, 의복에서의 조형미와 유형평가연구,

- 한국의류학회지, 14(4), 1990.
- 12)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 13) Rhipps, C.A., Clothing Design for Handicapped Elderly Women, 69, 1977.
 - 14) Tate, M.T., & Glisson, O. Family Cloth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3.
 - 15) 송미령, 우리나라 성인여자의 의복구성을 위한 인체계측,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16) 양미경, 한국여성의 의복구성을 위한 생체계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17) 유정미, 중년여성복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18) 조길수, 성인여성의 의복치수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I),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19) 손희순, 우리나라 중년기여성의 체형과 의복치수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20) 한국공업진흥청,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 1986.
 - 21) Davis, M.L.,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0.
 - 22)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1983.
 - 23) 이호정, 복식디자인, 교학연구사, 1987.
 - 24) 임숙자·권영남, 의복행동과 지능·사회경제적 지위 및 체격과의 관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2), 1986.
 - 25) 이미강·이인자,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9(1), 1985.
 - 26) 이선재,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와의 상관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1), 1987.
 - 27) 최재춘, 여학생의 의복선호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28) 권경희, 여자중·고교생의 의복기호도 실태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29) 김영인, 선호디자인 감각에 따른 의복구매자 유형과 관련된 생활양식 특성에 관한 연구(II), 한국의류학회지 13(4), 1989.
 - 30) 이경희·윤경혜·박정순, 원피스드레스의 줄무늬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4), 1990.